

요약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급감했던 여행수요는 백신 보급으로 점차 회복되고 있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속적인 여행제한 지침을 발표하고 있지만, 미국 내 여행 수요는 감소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여행 수요 증가는 여행보험수요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무면책 여행취소 보장이 포함된 여행보험 가입이 늘고 있음.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령층의 여행수요 감소로 여행보험의 주 수요층이 고령층에서 젊은 세대로 전환됨

○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급감했던 여행수요는 세계적인 백신 보급으로 점차 회복되고 있음

- Deloitte의 설문조사⁸⁾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보급 이후 미국 성인의 31% 이상이 비행기를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생각하며, 백신 접종자의 경우 54% 이상이 비행기를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생각함
- 동 설문조사의 응답자 중 약 30%는 다음 분기에 비행기를 이용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실시된 조사 중 가장 높은 수치임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코로나19 관련 항공기 탑승 규칙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여행 제한 지침을 발표하고 있으나, 미국 내 여행수요는 감소하지 않고 있음⁹⁾

- 2021년 1월 21일 CDC는 해외에서 미국으로 도착하는 모든 항공기 승객은 항공편 출발 3일 전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탑승 전까지 코로나19 음성 결과나 90일 이내에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규칙을 발표함¹⁰⁾
- 코로나19 관련 여행 규칙이 복잡해짐에 따라 미국 정부는 비행기를 교통수단으로 하는 해외여행과 일부 국내여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여행 수요는 감소하지 않고 있음
 - 미국 여행보험 비교 플랫폼인 SquareMouth의 조사에 따르면 CDC의 새로운 규칙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여행 예약의 70% 이상이 해외여행이었음¹¹⁾

○ 여행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여행보험에 대한 수요 또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코로나19가 본격화가 된

8) Deloitte(2021), "Deloitte's Global State of the Consumer Tracker"

9) Forbes(2021. 3. 4), "Spring Travel Insurance Trends Take Shape"

10) CDC(2021. 3. 2), "Requirement for Proof of Negative COVID-19 Test or Recovery from COVID-19 for All Air Passengers Arriving in the United States"

11) SquareMouth(2021. 1. 28), "US Travelers Still Planning International Trips, Despite CDC Requirement"

이래로 가장 많은 여행보험 상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무면책 여행취소 보장(Cancel for Any Reason: CFAR)¹²⁾이 포함된 고가의 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이 증가하였음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행기간 동안의 전염병 감염, 안전 등을 보장하는 여행보험은 여행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으며, 여행 수요 확대에 따라 여행보험의 수요 또한 확대되고 있음
- 미국 여행보험 비교 플랫폼인 InsureMyTrip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 3월에는 코로나19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2020년 3월 이래로 가장 많은 수의 여행보험이 판매되었음¹³⁾
- 특히 SquareMouth의 조사에 따르면 여행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취소 부담과 CDC의 여행 관련 규제 변화에 따른 리스크에 대응하고자 무면책 여행취소 보장이 포함된 보험에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42% 더 가입하고 있음¹⁴⁾
 - CFAR 보장이 포함된 여행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다른 상품 대비 약 40% 높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전체 여행보험의 약 95%가 무면책 여행취소 보장을 포함함

○ 코로나19 이후 고령층의 여행수요 감소로 연령별 여행보험 수요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감소하고 젊은 세대의 비중이 증가함¹⁵⁾

- Squaremouth의 조사¹⁶⁾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고령 여행자들이 감소하여 평균 여행자 연령이 50세 이상에서 38세로 감소함
 -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고령층의 여행 비중이 소폭 증가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고령 여행자의 여행수요는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임¹⁷⁾
- 동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 미국 여행보험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50세 이상이었으나, 코로나19 대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 8월 이후로는 여행보험 가입자의 60%가 50대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이전 미국의 젊은 여행보험 가입자(21세 이하)는 11%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 5월 이후에는 여행보험 가입자의 25%를 차지하며 여행보험 가입자 중 젊은 세대의 비중이 2배 이상 증가함

12) CFAR(Cancel For Any Reason)은 여행자가 출발 2~3일 전에 어떤 이유론든 여행을 취소할 경우 지출된 여행비의 75%를 환급함

13) CISION(2021. 3. 16), "Travel Insurance Demand Hits Highest Level Since March 2020"

14) SquareMouth(2021. 1. 28), "US Travelers Still Planning International Trips, Despite CDC Requirement"

15)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SquareMouth를 통해 가입한 여행보험 데이터 기반의 조사

16) SquareMouth(2020. 8. 20), "For the First Time, Younger Travelers Insure the Majority of Trips"

17) Squaremouth(2021. 2. 19), "Impacts of Covid-19 Vaccine Rollout Already Felt on Travel"